

중학교 교사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와 영향요인: 계획된 행위이론의 활용

최미영* · 이명순**

*가평종합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Abstract |
| IV. 고찰 | |

I.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적인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통계청(2005)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중학생 경우, 2000년 7.4%에서 2004년 2.4%로, 여자 중학생은 3.2%에서 1.7%, 남자 고등학생은 27.6%에서 15.9%, 여자 고등학생 경우 10.7%에서 7.5%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5). 다행

히 청소년 흡연율이 최근 들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신체적·정서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건강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동안 생활하므로 청소년의 흡연행태 감소를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예방프로그램이 정착되어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을 담당하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청소년의 태도와 가치관을 건전하게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에서의 흡연예방교육 실시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중심의 예방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성지연, 1998; 이종철과 조홍식, 1999). 학교 교사들

교신저자 : 이명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우: 440-746)
전화번호: 031-299-6281, E-mail: msnlee@med.skku.ac.kr

은 학교 환경을 잘 알고 학생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김수동, 2001). 그러므로 교사의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은 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 효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흡연예방교육은 교사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교사의 흡연예방교육에 관한 인식, 태도 및 실천의도는 학교에서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 교사의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실천의도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관한 교사연수는 많지 않다. 지난 1998년부터 2년 동안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흡연예방교육 관련 연수가 있었고(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2) 2001년부터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사연수에는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이후부터 관할 교육청이나 보건소 등에서 교사 연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경상남도 교육청, 2003; 진주시 보건소, 2003; 2004). 한편,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청소년 흡연의 실태와 유해성, 흡연 폐해실험, 흡연행동 수정기법, 금연교실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방법은 주로 강의중심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2002; 경상남도 교육청, 2003),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화나 역량함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효과적인 학교중심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실천의도를 조사해서, 이를 근거로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태도 및 실천의도 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편,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태도 및 실천 의도는 Fishbein과 Ajzen의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활용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계획된 행위이론에서는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행위의도를 제시하고, 행위의도는 행위태도와 주관적 사회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이 이론에서 행위태도는 특정 행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심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대상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태도를 강조한다(Montaño 등, 1996; Fishbein, 2000; Montaño 등, 2002). 주관적인 사회규범은 대상 집단이 행위수행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을 뜻하는 데, 동일한 대상 집단이라 할지라도 행위에 따라서 태도 및 주관적 사회규범의 중요성이 다를 수 있다(Glanz, 1995; Montaño 등, 1996). 한편,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 수행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행위수행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상황에 대한 믿음인 통제신념과 통제신념이 행위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지각된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Ajzen 등, 1986; 1998; Montaño 등, 1996; Fishbein, 2000; Montaño 등, 2002). 따라서 계획된 행위이론에 의하면 교사들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실천 의

도는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및 주관적 사회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사들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 및 이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획된 행위이론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활용해서 교사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천의도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교사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학교중심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일반 중학교 중 4개 학교를 편의추출해서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19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특정 교과와 관계없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보건교사보다 학생과의 접촉시간이 많은 일반과목 교사들이 학생의 태도와 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반 교사의 협조가 없이는 흡연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흡연예방교육은 일부 교사에 의해서만 실시될 경우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료 수집은 2002년 9월 25일~26일 동안 4개 중학교의 각 대표 교사 4명을 통하여 해당 학교의 모든 교사에게 설문조사서 194부를 배부하였고, 9일 후인 10월 4일~5일 동안 각 대표교사를 통해 회수되었다. 194부의 설문조사서 중 회수된 설문조사서는 139부로 응답률은 72.2%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여교사가 69.8%였고,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4명중 1명이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예방교육 연수경험율은 9.4%로 매우 낮았으며 흡연예방교육 실천경험율은 70.1%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9)

| 특 성 | 구 분 | 명(%) |
|-------------|---------------|------------|
| 학교유형 | 남녀공학 | 77 (55.4) |
| | 여학교 | 62 (44.6) |
| 성 별 | 남자 | 41 (29.5) |
| | 여자 | 97 (69.8) |
| | 무응답 | 1 (0.7) |
| 연 령 | 만 22세 ~ 29세 | 19 (13.7) |
| | 만 30세 ~ 39세 | 46 (33.1) |
| | 만 40세 ~ 49세 | 58 (41.7) |
| | 만 50세 ~ 59세 | 15 (10.8) |
| | 만 60세 이상 | 1 (0.7) |
| 흡연경험 | 현재 흡연 | 16 (11.5) |
| | 과거 흡연, 현재 비흡연 | 20 (14.4) |
| | 현재, 과거 비흡연 | 101 (72.7) |
| | 무응답 | 2 (1.4) |
| 흡연예방교육 연수경험 | 유 | 13 (9.4) |
| | 무 | 126 (90.6) |
| 흡연예방교육 실천경험 | 유 | 96 (70.1) |
| | 무 | 41 (29.9) |

2. 연구내용 및 조사도구

연구내용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교에

서의 흡연예방교육의 실태 및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태도 및 실천의도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교유형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경험 유무, 흡연예방교육 연구경험 등에 관해서 조사하였다. 학교 흡연예방교육의 실태는 학교수준과 개인수준에서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유무 및 교육방법을 조사하였다.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태도 및 실천의도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해서 개발한 연구모형(그림 1)에 따라 조사하였다. 향후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와 함께 영향요인으로 흡연예방교육 실천 기대결과에 대한 주관적 믿음('행위 신념')과 기대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행위 결과평가'),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한 주위의 기대에 대한 주관적 인식('규범적 신념')과 이에 부응하려는 정도('순응동기') 및 흡연예방교육 실

천 관련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통제신념')과 이에 관한 주관적 평가('지각된 영향')를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제시한 대로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해서 직접 측정하였다. 한편, '행위태도', '주관적 사회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는데, '행위태도'는 '행위신념'과 '행위 결과평가' 점수를 곱해서 산출하였고, '주관적 사회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 점수를, '지각된 행위통제'는 '통제신념'과 '지각된 영향' 점수를 각각 곱해서 산출하였다. 구성개념별 정의 및 측정척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흡연예방교육은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흡연의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흡연에 관한 바람직한 태도 변화를 일으켜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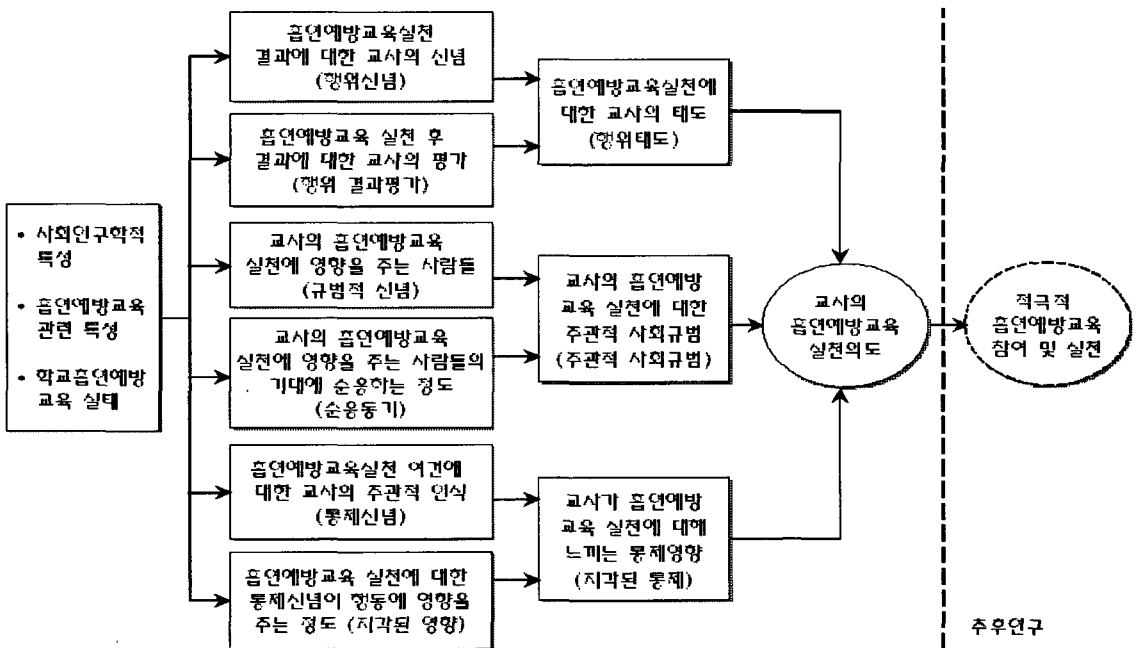


그림 1. 계획된 행위 이론에 근거한 연구모형

표 2. 조사도구의 구성개념 및 측정척도*

| 구성개념 | 정의 | 측정척도 (1문항당 점수범위) | 문항수 | 신뢰계수† |
|---------------------|--|------------------------------------|-----|-------|
|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 |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하려는 정도나 가능성 | 전혀 그렇지 않다 ~ 항상 그럴 것이다 (-3~+3) | 4 | .73 |
|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행위태도 |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해 교사가 선호하는 평가정도 | [간접측정] 행위신념 × 결과평가 (-9~+9) | | |
| 행위신념 |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전혀 그렇지 않다 ~ 정말 그럴 것이다 (-3~+3) | 5 | .83 |
| 행위 결과평가 | 흡연예방교육을 실천 시 예상되는 결과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 대단히 나쁘다 ~ 매우 좋다 (-3~+3) | 5 | .83 |
|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 | 흡연예방교육 실천여부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교사 주위의 사회적 압력이나 분위기 | [간접측정] 규범적 신념×순응동기 (-21~+21) | | |
| 규범적 신념 |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하여 교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위사람들 (referents)의 기대 | 전혀 그렇지 않다 ~ 정말 그렇다 (-3~+3) | 6 | .94 |
| 순응동기 | 흡연예방교육에 실천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기대에 교사가 부응하려는 정도 | 전혀 그렇지 않다 ~ 항상 그럴 것이다 (+1~+7) | 6 | .93 |
|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수월함이나 어려움 | [간접측정] 통제신념×지각된 영향 (-9~+9) | | |
| 통제신념 | 흡연예방교육 실천 시 예상할 수 있는 교육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 정말 그럴 것이다 (-3~+3) | 10 | .70 |
| 지각된 영향 | 흡연예방교육 실천 시 예상되는 방해 혹은 촉진 상황이 교육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 인식 | 매우 어렵게 만든다 ~ 매우 쉽게 만든다 (-3~+3) | 10 | .80 |

* 측정척도는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 '행위신념'과 '행위결과평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 및 '통제신념'과 '지각된 영향'은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해서 직접 측정하였고, '행위태도' 및 '주관적 사회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는 각각 간접측정을 통해서 산출하였음.

† Chronbach's α 신뢰계수를 이용해서 측정하였음.

조사도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제시하는 대로 현직 교사 9명을 대상으로 1차 유도면접조사 (elicitation interview)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와 2002년 7월 1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2002 청소년 건강세미나¹⁾를 통해 얻어진 교사들의 학

교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토의자료의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그림 1)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서 형태로 개발하였다. 개발한 조

의 장학사, 수원시내의 중학교 보건교사 및 일반교사 그리고 수원 및 진주지역 보건소의 보건소장 및 실무자가 참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실태에 대해 토의한 세미나임.

1) 2002 청소년 건강세미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주최로 열린 세미나로 수원시 교육청

사도구는 현직교사 및 전문가 3명의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계수는 .70~.94로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표 2).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학교에서의 흡연예방교육 실태 및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태도 및 실천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태도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정 및 ANOVA를 실시하였으며,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행위태도, 주관적 사회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교사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행위태도, 주관적 사회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행위신념'과 '행위 결과평가'를 통해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교사들은 특히 흡연예방교육이 학생들의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담배의 해로움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며, 흡

연학생의 감소 및 학생들의 비행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한편, 흡연예방교육으로 인해 교사 개인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교사들은 자신들이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주위의 기대는 비교적 약하게 느끼는 반면,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정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자신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해서 교육청, 교장(교감) 및 주위 동료 교사들보다 학부모, 학생 및 가족들이 더 많은 기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순응동기 역시 학부모, 학생 및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정도가 더 높았다. 한편,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를 통해 산출한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은 평균 1.46~3.51로 나타나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한 주위의 사회적 압력이나 분위기를 비교적 많이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장애 혹은 도움이 되는 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지각된 통제'를 '통제신념'과 '지각된 영향'을 통해 측정된 결과, 가정, 사회와 연계한 흡연예방교육(2.93), 흡연을 금지하는 학교 방침(2.15) 및 법률과 제도(2.06) 등이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행위태도' 점수가 -0.12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지각된 행위통제'에서는 업무가 많은 것(-1.62)을 가장 큰 장애로 느꼈으며, 흡연예방교육 시간확보의 어려움(-1.15), 흡연예방교육의 효과측정의 어려움(-0.90), 학생들의 흡연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식(-0.80) 등에 대해서도

표 3.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행위태도, 주관적 사회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

평균(표준편차)

| 측정문항 | 행위태도§ | 행위신념† | 행위결과평가† |
|------------------------------|--------------|-------------|--------------|
| 학생의 건강향상에 도움이 된다 | 4.16 (3.76) | 1.77 (1.24) | 2.05 (1.00) |
| 흡연학생이 감소한다 | 2.58 (2.97) | 1.12 (1.05) | 2.01 (1.03) |
| 학생의 비행예방에 도움이 된다 | 2.84 (3.07) | 1.24 (1.10) | 1.91 (1.09) |
| 학생이 담배의 해로움을 알게 된다 | 4.44 (3.01) | 1.82 (0.95) | 2.23 (0.79) |
| 나의 업무가 늘어난다 | -0.12 (1.89) | 0.12 (1.47) | 0.00 (0.85) |
| 측정문항 | 주관적 사회규범 | 규범적 신념† | 순응동기‡ |
| 교육청 | 1.50 (5.40) | 0.12 (1.33) | 4.00 (1.63) |
| 교장(교감) | 2.14 (5.86) | 0.29 (1.36) | 4.18 (1.49) |
| 주위 동료 교사 | 1.46 (5.99) | 0.17 (1.33) | 4.22 (1.49) |
| 학부모 | 3.33 (6.11) | 0.56 (1.33) | 4.56 (1.40) |
| 학생 | 3.51 (7.20) | 0.63 (1.38) | 4.80 (1.41) |
| 가족 | 3.39 (6.48) | 0.55 (1.40) | 4.30 (1.54) |
| 측정문항 | 지각된 행위통제¶ | 통제신념† | 지각된 영향† |
|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시간확보가 어렵다 | -1.15 (2.35) | 0.65 (1.37) | -0.80 (1.06) |
| 교사의 업무가 많다 | -1.62 (2.70) | 0.91 (1.38) | -0.94 (1.15) |
| 학생 자신이 흡연의 심각성을 알지못한다 | -0.80 (3.15) | 1.71 (0.99) | -0.61 (1.42) |
| 흡연예방교육의 효과 측정이 어렵다 | -0.90 (2.45) | 0.96 (1.20) | -0.62 (1.15) |
| 학생의 심리적·신체적·환경적 이해는 도움이 된다 | 1.16 (2.91) | 1.58 (0.93) | 0.62 (1.41) |
|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도움이 된다 | 1.99 (3.46) | 1.83 (0.94) | 0.91 (1.35) |
| 흡연에 대한 시청각교재가 도움이 된다 | 1.48 (3.68) | 1.14 (1.41) | 0.68 (1.57) |
| 학교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학교의 방침은 도움이 된다 | 2.15 (2.83) | 1.57 (1.07) | 1.00 (1.15) |
| 가정, 사회와 연계한 흡연예방교육은 도움이 된다 | 2.93 (3.75) | 2.04 (0.98) | 1.27 (1.30) |
| 흡연을 못하게 하는 법률과 제도는 도움이 된다 | 2.06 (3.16) | 1.25 (1.30) | 1.01 (1.22) |

† Likert 7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음(평균점수의 범위: -3~+3)

‡ Likert 7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음(평균점수의 범위: +1~+7)

§ '행위신념'×'결과평가'로 산출함(평균점수의 범위: -9~+9)

|| '규범적 신념'×'순응동기'로 산출함(평균점수의 범위: -21~+21)

¶ '통제신념'×'지각된 영향'으로 산출함(평균점수의 범위: -9~+9)

어려움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사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

교사들은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흡연학생

을 발견하였을 때 지도하거나 학생들에게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학교수준의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하려는 등 실천 의도는 평균 1.95이상으로 충분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연수교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실천 의도는 0.16으로 긍정적이거나 다소 낮았다(표 4).

표 4. 교사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
 평균(표준편차)

| | 실천의도† |
|--|-------------|
| 나는 흡연학생을 발견하면 학생을 지도하겠다. | 2.28 (0.85) |
| 나는 우리학교의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흡연에 대한 유해성을 알리겠다. | 2.07 (0.82) |
| 나는 학교수준의 흡연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 1.95 (0.83) |
| 나는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가 있다면 참여하겠다. | 0.64 (1.51) |

† Likert 7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음(평균점수의 범위: -3~+3)

3.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와 영향요인과의 관련성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와 영향요인인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행위태도', '주관적 사회규범' 및 '지각된 통제'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행위태도'와 '주관적 사회규범'은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상관성이 낮았다. 이 세 가지 영향요인들이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행위태도'와 '주관적 사회규범'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각된 통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교사들은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자신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한 주위의 기대가 클수록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가 유의하게 높으며, 이 세 영향요인들은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를 약 20% 정도 설명하였다(표 5).

4.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수경험 및 개인수준의 흡연예방교육 실천경험에 따른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주관적 인식(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

교사의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및 통제신념에는 교사의 흡연여부, 연수경험과 개인수준의 흡연예방교육 경험유무 등이 관련이 있었고, 특히 규범적 신념과 통제신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반면, 학교유형, 성별 및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흡연여부에 따른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행위신념'과 '통제신념'의 일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흡연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들이 흡연경험이 있는 교사들에 비하여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자신의 업무가 늘어나고, 현재 교사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였고, 흡연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

표 5. 교사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와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행위태도, 주관적 사회규범 및 지각된 행위 통제와의 관련성

| | 상관계수(r) | 회귀계수 (표준오차) | |
|----------|---------|---------------|---|
| 행위태도 | 0.338** | 0.26**(0.030) | 수정된 R ² =0.202, F=12.277*** |
| 주관적 사회규범 | 0.395** | 0.31**(0.012) | |
| 지각된 통제 | -0.031 | -0.09 (0.036) | |

** p < 0.01, *** p < .001

표 6. 교사의 흡연여부, 연수경험 및 개인수준의 흡연예방교육 실천경험에 따른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및 통제신념

| 신념 | 흡연여부 | | | F값 | 연수경험 | | | 개인수준의 흡연예방교육 실천경험 | | |
|----------------------------|--------------------|------------------------------|----------------------------|---------|----------------|----------------|---------|----------------------|-----------------|--------|
| | 현재 흡연 (n=16) | 과거흡연, 현재 비흡연 (n=20) | 과거, 현재 비흡연 (n=99) | | 유 (n=13) | 무 (n=126) | t값 | 유 (n=96) | 무 (n=41) | t값 |
| | | | | | | | | | | |
| 행위신념 | | | | | | | | | | |
| 학생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 | 1.88 (0.96) | 2.05 (1.23) | 1.70 (1.27) | 0.722 | 1.77 (1.09) | 1.77 (1.25) | -0.002 | 1.85 (1.22) | 1.51 (1.25) | 1.49 |
| 흡연 학생이 감소한다 | 1.13 (0.81) | 1.40 (1.39) | 1.05 (0.99) | 0.948 | 1.15 (0.99) | 1.11 (1.06) | 0.139 | 1.20 (1.03) | 0.90 (1.09) | 1.51 |
| 학생의 비행예방에 도움이 된다 | 1.44 (0.96) | 1.35 (1.18) | 1.18 (1.10) | 0.518 | 1.77 (1.09) | 1.83 (0.94) | 0.505 | 1.31 (1.12) | 1.02 (1.06) | 1.40 |
| 학생이 담배의 해로움을 알게 된다 | 1.81 (0.91) | 1.80 (0.89) | 1.83 (0.96) | 0.011 | 1.23 (0.00) | 1.09 (1.31) | -0.202 | 1.94 (0.88) | 1.54 (1.07) | 2.28* |
| 나의 업무가 늘어난다 | -0.69 (1.62) | -0.30 (1.63) | 0.37 (1.33) | 5.016** | 0.23 (1.54) | 0.10 (1.47) | 0.297 | -0.09 (1.41) | 0.56 (1.53) | -2.42* |
| 규범적 신념 | | | | | | | | | | |
| 교육청 | 0.38 (1.71) | 0.10 (1.55) | 0.10 (1.22) | 0.296 | 1.23 (1.09) | 0.00 (1.31) | 3.275** | 0.29 (1.30) | -0.35 (1.31) | 2.62** |
| 교장(교감) | 0.81 (1.64) | 0.20 (1.51) | 0.21 (1.27) | 1.396 | 1.31 (1.11) | 0.19 (1.34) | 2.915** | 0.58 (1.26) | -0.45 (1.30) | 4.31** |
| 주위 동료 교사 | 0.38 (1.50) | 0.25 (1.48) | 0.10 (1.28) | 0.347 | 1.31 (1.03) | 0.05 (1.31) | 3.365** | 0.50 (1.24) | -0.68 (1.16) | 5.13** |
| 학부모 | 0.38 (1.45) | 0.40 (1.39) | 0.61 (1.32) | 0.360 | 1.23 (0.93) | 0.49 (1.35) | 1.929 | 0.77 (1.15) | -0.05 (1.54) | 3.05** |
| 학생 | 0.50 (1.71) | 0.65 (1.46) | 0.65 (1.33) | 0.078 | 1.54 (1.13) | 0.53 (1.38) | 2.546* | 1.00 (1.11) | -0.30 (1.56) | 4.80** |
| 나의 가족 | 0.44 (1.46) | 0.50 (1.40) | 0.61 (1.41) | 0.127 | 1.46 (0.97) | 0.46 (1.41) | 2.495* | 0.97 (1.11) | -0.48 (1.52) | 5.44** |
| 통제신념 | | | | | | | | | | |
| 흡연예방교육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 -0.56 (1.31) | 0.85 (1.27) | 0.79 (1.30) | 7.761** | 0.54 (1.13) | 0.66 (1.40) | 0.098 | 0.48 (1.32) | 1.02 (1.44) | -2.14* |
| 교사의 업무가 많다 | 0.06 (1.06) | 0.45 (1.47) | 1.13 (1.34) | 5.813** | 0.62 (1.50) | 0.94 (1.37) | 0.666 | 0.79 (1.41) | 1.15 (1.31) | -1.38 |
| 학생자신이 흡연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 | 0.81 (1.68) | 0.45 (1.50) | 1.32 (1.31) | 3.771* | 0.77 (1.42) | 1.18 (1.41) | 1.016 | 1.63 (1.05) | 1.90 (0.84) | -1.47 |
| 흡연예방교육의 효과측정이 어렵다 | 1.13 (1.36) | 0.85 (1.46) | 0.95 (1.11) | 0.239 | 1.00 (1.35) | 0.96 (1.19) | 0.013 | 0.86 (1.24) | 1.20 (1.09) | -1.49 |
| 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이해는 도움된다 | 1.75 (0.77) | 1.55 (0.76) | 1.55 (0.99) | 0.322 | 1.46 (.88) | 1.59 (0.94) | 0.228 | 1.69 (0.84) | 1.30 (1.11) | 2.22* |
|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도움이 된다 | 1.50 (1.10) | 1.75 (1.12) | 1.91 (0.85) | 1.464 | 1.46 (1.13) | 1.87 (0.91) | 2.273 | 1.81 (0.98) | 1.88 (0.85) | -0.36 |
| 흡연에 대한 시청각 교재가 도움이 된다 | 1.13 (1.15) | 1.85 (0.99) | 1.78 (0.93) | 3.424* | 1.31 (1.18) | 1.75 (0.96) | 2.394 | 1.02 (1.50) | 1.43 (1.17) | -1.52 |
| 흡연을 금지하는 학교 방침은 도움이 된다 | 1.69 (1.08) | 1.65 (1.09) | 1.53 (1.06) | 0.223 | 1.15 (1.46) | 1.61 (1.02) | 2.152 | 1.69 (1.01) | 1.25 (1.15) | 2.21* |
| 가정, 사회와 연계한 흡연예방교육은 도움이 된다 | 1.88 (1.09) | 1.95 (1.00) | 2.09 (0.94) | 0.450 | 1.08 (1.44) | 2.14 (0.86) | 12.913* | 2.03 (1.02) | 2.03 (0.89) | 0.03 |
| 흡연은 금지하는 법률과 제도는 도움이 된다 | 0.94 (1.48) | 0.95 (1.28) | 1.36 (1.27) | 1.364 | 0.46 (1.81) | 1.34 (1.22) | 5.489* | 1.21 (1.37) | 1.30 (1.14) | -0.37 |

* p < 0.05, ** p < 0.01, *** p < .000

재 비흡연 교사들은 흡연 교사들에 비해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시간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흡연예방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시청각교재가 도움이 된다고 관심을 보였다.

흡연예방교육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연구경험이 없는 교사들에 비해서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한 장애 및 도움이 되는 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연구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어려움이나 도움정도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 사회와 연계한 흡연예방교육 및 흡연금지 법률과 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개인수준의 흡연예방교육 실천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경험이 있는 교사가 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흡연예방교육의 기대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기대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흡연예방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흡연예방교육 실천시의 어려움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예방교육과 관련한 교사의 전문적인 교육과 가정, 사회와 연계한 흡연예방교육 및 흡연을 금지하는 학교방침이나 사회적인 제도와 법률 등에 관해서는 개인수준의 흡연예방교육 실천경험과 관계없이 흡연예방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IV. 고찰

본 연구는 수도권에 있는 중학교 중 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태도, 그리고 행위의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관한 유사한 내용의 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연구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조사대상자의 69.8%가 여교사였고,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는데, 여교사가 68.9%, 30대가 가장 많은 수도권 교사의 분포(경기도 교육청, 2001; 서울시 교육청, 2001)와 비교해서, 성별은 비슷한 수준이나 연령은 다소 높았다. 이것은 조사대상자 수가 비교적 적었고, 편의추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대상 학교 중 교사의 근무학교 이동이 거의 없는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교사의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태도 및 행위의도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현재 흡연 교사는 12%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6)의 연구에서 조사한 39.2%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남자가 68.9%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여교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관련 연구경험 경우, 경험이 있는 교사가 9.4%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보고한 40.6%에 비해 상당히 낮았는데, 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우 흡연예방교육의 주축이 되는 보건교사와 학생지도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 반면 본 연구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흡연예방교육을 자신의 업무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반교사의 생각이나 일반 교사 경우, 보건교사에 비해서 흡연예방교육과 관련된 연수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개인수준의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하고 있었으나, 흡연에 대한 교사의 의견 제시 혹은 금연 권유 등 비교적 소극적 방법을 통해 흡연예방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반교사 대상의 흡연예방교육관련 연수기회를 제공해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흡연예방교육방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흡연예방교육 기대결과에 대한 교사의 '행위신념' 및 '결과평가'와 '흡연예방교육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흡연예방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건강이나 생활 태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이미 많은 연구(이명순, 2002; 2003; Gerstein과 Green, 1993)에서 흡연이 청소년 비행의 시발점이 된다고 보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예방교육이 학생들의 비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약하게 긍정하였다. 흡연예방교육으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나 '통제신념'에서는 교사의 업무가 많은 것을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한 주위의 기대에서 학생과 학부모 및 가족의 기대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교육청, 교장(교감) 및 주위 동료교사의 기대는 다소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장과 주위 동료의 기대가 클수록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이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학교 및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사들로 하여금

주위의 기대를 느끼게 하면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각된 행위 통제'에서 교사들은 가정, 사회와 연계한 흡연예방교육이 특히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도움이 되며, 실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흡연을 포함한 약물남용 교육 시 학부모와의 상담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성지연(1998)의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흡연예방교육 시간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되면서 교사 재량활동 시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들은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할 의사는 충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묻는 흡연예방교육 관련 연수 참여에 대해서는 약한 긍정을 보였는데, 이는 교사들이 관련 연수에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 및 학교유형에 따른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태도 및 행위의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의 흡연경험과 연수경험, 그리고 교사 개인수준의 흡연예방교육 실천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의 흡연여부에 따른 신념에서는 '행위신념'과 '통제신념'의 일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흡연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들이 흡연경험이 있는 교사들에 비하여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자신의 업무가 늘어나고, 현재 교사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였고, 흡연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한 현재 비흡연 교사들은 흡연 교사들에 비해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시간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흡연예방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시청각교재가 도움이 된다고 관심을 보였다. 한편, 흡연예방교육 관련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들에 비해서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한 장애 및 도움이 되는 여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어려움이나 도움정도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의 흡연예방교육 실천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전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경험이 있는 교사가 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흡연예방교육의 기대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기대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또한, 개인수준의 흡연예방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흡연예방교육 실천시의 어려움에 관해 전반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예방교육과 관련한 교사의 전문적인 교육과 가정, 사회와 연계한 흡연예방교육 및 흡연을 금지하는 학교방침이나 사회적인 제도와 법률 등에 관해서는 개인수준의 흡연예방교육 실천경험과 관계없이 흡연예방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통제와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와 관련된성을 상광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흡연예방교육 태도 및 주관적 사회규범이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사회규범이 높을수록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지각된 행위통제 경우, 실천의도와 상관성이 낮았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에 대한 이 세 가지 영향요인들의 설명력은 20% 정도였는데, 설명력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것은 계획된 행위이론에서는 개인 간 혹은 개인과 환경 간의 실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행위를 설명하므로 행위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낮을 수 있다. 한편, 지각된 행위통제가 실천의도와 상관성이 낮고, 실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계획된 행위이론에서는 행위에 대한 자발적 통제(volitional control)가 높은 경우, 지각된 행위통제의 효과는 감소하고, 행위태도와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행위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Montaña 등, 1996; 2002).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교사들은 아직은 학교에서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한 동기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력과 상관성이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비교적 쉽게 행할 수 있는 행위(수업 중 흡연에 대한 유해성을 알리거나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흡연예방교육 실천은 사전에 계획된 행위가 아니고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도 실천이 가능하므로 행위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영향력이 작은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분위기가 교사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거나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높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광역시 및 도 교육청 등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청소년 흡연문제 및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교육교재나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교육교재는 중앙수준에서 일부 개발되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반면, 프로그램은 아직 표준화되거나 일반화될 만큼 개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예방효과 또한 객관적으로 측정되거나 입증된 바가 없다(이명순, 2002). 한편, 학교 등의 현장에서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은 표준화된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 및 다양한 시청각자료 등을 필요로 하고,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여론 형성이나 환경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성장발달 특성이나 교사의 요구 및 학교의 주요 관심사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중심의 흡연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 수준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교사들은 다양한 흡연예방교육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가들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 및 교육해야 하고, 학교는 교사들에

게 흡연예방교육 관련 연수기회를 골고루 제공 및 흡연예방교육 실천을 권장해서 교사들의 동기화를 촉진하는 한편 흡연예방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와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하는 교사 및 학교에 대해서 제도적,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흡연을 지양하는 분위기와 교사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한 사회의 기대 및 이를 격려 및 지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계획된 행위이론을 활용해서 교사집단의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실천의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학교중심의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점이 있으며, 향후 대상 집단을 확대해서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로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 태도, 주관적 사회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행위의도와 관련된성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나 태도가 실천의도 뿐만 아니라 실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동일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중학교 교사 194명

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위이론을 활용해서 흡연 예방교육 실천에 관한 교사의 인식, 태도 및 실천의도를 조사하였다. 중학교 교사들은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해서 주위의 기대는 비교적 약하게 느끼는 반면, 기대에 부응하려는 정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들은 흡연예방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 가정, 사회와 연계한 흡연예방교육 및 흡연을 금지하는 학교방침이나 법률, 사회적 제도 등을 가장 도움이 되는 여건으로, 교사의 업무가 많은 것을 가장 큰 장애로 느꼈다. 한편,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에는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한 주위의 기대는 약하게 느끼는 반면,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신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한 사회의 기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가 높았다. 따라서 교사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 및 적극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학교에서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실천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다 강조하고, 교사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에 대한 사회의 기대 및 이를 지원하는 학교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관련 연수기회를 가능한 많은 교사들에게 제공한다면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적극적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교중심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이 교사를 비롯해서 학부모, 지역사회 및 사회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사의 흡연예방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의 효

과를 더욱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흡연예방교육실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나 태도가 실천의도 뿐만 아니라 실제 실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 집단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접수일자: 2005.12.3, 게재확정일자: 2005.12.20>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교육통계: 교사의 연령분포와 성별 분포. 경기: 경기도교육청, 2001. <http://www.ken.go.kr>
- 경상남도교육청. 흡연예방·금연교육 지도서: 콜롬부스의 변명(초등용). 경상남도교육청, 2003.
- 경상남도교육청. 흡연예방·금연교육 지도서: 콜롬부스의 변명(중등용). 경상남도교육청, 2003.
- 김수동. 교사와 교육철학. 책사랑, 2000.
- 서울시교육청. 교육통계: 교사의 연령분포와 성별 분포. 2001. http://www.sen.go.kr/law/law_a.html
- 성지연. 학교 청소년 약물남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서울시 중·고등학교 양호교사 대상[석사학위논문]. 서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1998.
- 이명순. 한국에서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2002/WHO 정규세미나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2;2-18.
- 이명순. 긍정적 포래영향 등 사회영향 대처관련 요인이 청소년 건강위험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학회* 2003;14:317-341.
- 이종철, 조홍식. 체육교사의 수업행동이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1999;6(2):1-11.
- 진주시 보건소.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자 교육교재. 경남: 진주시 보건소, 2003.
- 진주시 보건소.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자 교육교재. 경남: 진주시 보건소, 2004.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운동 지도 교사 연수교재. 서울: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흡연예방운동 시범학교 모범사례집. 서울: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등학교 흡연예방교육 학습지도안(재량활동용). 서울: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 통계청. 2005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2005. 5.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2002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흡연실태조사. 서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2.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에 대한 일선교사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6.
- Ajzen I, Fishbein M.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98.
- Ajzen I, Madden TJ. Prediction of Goal Directed-Behavior: Attitude, Inten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86;22.
- Daniel E. Montañó, Danuta Kasprzyk, Stephan H, Taplin. The Theory of Planned Health Behavior. In: Glanz, Frances Marcus Lewis, Barbara K. Rimer.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2nd ed). Jossey-Bass, 1996; 85-112.
- Daniel EM, Danuta K. The Theory of Planned Health Behavior. In: Glanz, Frances Marcus Lewis, Barbara K. Rimer.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3rd ed). Jossey-Bass, 2002.
- Fishbein M. The role of theory in HIV prevention. *AIDS Care* 2000;12(3):273-278
- Gerstein DR, Green LW.(eds.). Preventing Drug Abuse: What Do We Know?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93.
- Glanz K, Rimer BK. Theory at a Glance: A guide for health promotion practice. National Cancer Institute, U.S. Dept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5. http://rex.nci.gov/NCI_Pub_Interface/Theory_at_galnce/HOME.html

<ABSTRACT>

Korean Middle School Teachers'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Adolescents' Smoking Prevention Programs

Mi-Young Choi* · Myoung-Soon Lee**

*Gapyong High School

**Dept. of Social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Objectives: To prevent smoking among adolescents, we should facilitate school-based smoking prevention programs and provide supports for teacher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se programs. This study investigated Korean middle teachers' intention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participating in smoking prevention programs.

Methods: The study design was cross-sectional. Our conceptual framework utilize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by Fishbein and Ajzen. We conducted open-ended elicitation interviews with teachers. We developed the survey questionnaire contents with data from these interviews, and distributed the questionnaires in 2002 to 194 school teachers from four schools in Seoul and Kyounggi-Do. Teachers' beliefs (behavioral, normative & control) and intentions about participating in smoking prevention programs were measured by 7-point scales.

Results: The majority of teachers surveyed reported participating in adolescents' smoking prevention programs, while only less than 10% teachers reported having educational training for such programs. Teachers' attitudes toward participating in smoking prevention programs were positive, but they did not feel strong subjective norms about participating in the programs. They reported several barriers as well as facilitating conditions in participating in those programs. In correlation analysis, teachers' subjective norms and attitudes toward participating in smoking prevent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ir intentions to participating in those programs. Teachers with positive perceptions about smoking prevention programs were more likely to have strong intentions to participation in them, while teachers who received educational training and instructions on how to teach in smoking prevention programs we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perceptions than those who did not.

Conclusion: We concluded that smoking preven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can be made more effective by increasing societal expectations that teachers participate in these programs, and by providing additional resources dedicated to facilitating teache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m.

Key words: Korean Teachers, Intention, Participation, Adolescents' Smoking Prevention Programs